



LH광전본부 ‘주거복지 포인트 시즌2’ 협약

LH광주전남본부는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주미래실헬과 함께 지역민 상생협력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따뜻한 주거복지포인트 시즌2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서구와 LH는 ‘늘푸른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상호 협력하고, LH와 광주미래실헬은 주거복지포인트 재원을 매칭해 마련한다.

따뜻한 주거복지포인트 사업은 입주민이 작은도서관을 방문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포인트를 지급하고 매월 적립된 포인트를 관리비 차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LH가 공동체 활성화와 임대주택 내 고령·독거세대에 대한 고독사 예방 및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올해 광주서구 등 8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 예정이다. 유병용 LH광주전남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광주지역경제교육센터, 상반기 실무협의회

광주연구원 광주지역경제교육센터는 최근 ‘2025년 상반기 광주지역경제교육센터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협의회는 지역 내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소통과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등 유관 행정기관을 비롯, 광주공유센터,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화아람일터, 광주자립지원전담기관,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 공군 제1전투비행단, (사)대한노인회광주광역시연합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인그래픽스 등 총 13개 지역 내 경제교육 협력 및 수요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5년도 경제교육 운영 계획 및 상반기 진행 현황 공유 △수요기관의 교육 수요 및 협력 제안 청취 △기관 간 공동 프로그램 발굴 방향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최권범 기자



송원대 미용예술학과, 국제미용대회 전원 입상

송원대학교 미용예술학과는 지난 5월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8회 KO.B.E.A 국제미용경진대회’에 참가해 출전 학생 전원이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3일 밝혔다. (사진)

송원대는 이번 대회에 1학년생만으로 구성된 팀을 출전시켜 모든 부문에서 수상 성과를 올렸다.

헤어커트 부문에서는 김지은 학생이 국회의원상을, 헤어 브로우드라이 부문에서는 정아현 학생이 금상을 받았다.

피부미용 매뉴얼테크닉 부문에서는 서다솔 학생이 은상을, 판타지메이크업 부문에서는 신민주 학생이 동상을 수상했다.

박장순 송원대 미용예술학과장은 “전 종목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학생들이 자랑스롭다”며 “이번 수상이 미용예술학과 신입생들에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감염병 대응 전략 심포지엄 개최

광주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최근 광주 라마다플라자 총장호텔에서 출범 5주년 기념 감염병 대응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 심포지엄은 광주감염병관리지원단의 지난 5년간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감염병 대응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는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광주광역시, 자치구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 및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특화 감염병 관리사업 성과 발표(김진 부단장) △지자체 감염병 정책 방향 제안(박건희 평창군 보건의료원장), △신종감염병 대응 특강(박항 前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정립, 기술지원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정상아 기자**



인구보건복지협 지회 ‘홍보자문위원회의’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는 최근 지회 회의실에서 2025년 홍보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홍보자문위원회는 협회의 홍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사업을 비롯한 협회의 주요 목적사업 및 건강증진사업의 전략적인 홍보방안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위원회는 광주전남지역 언론분야 5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사업운영 및 홍보사업 현황과 주요 사업인 광주·전남 100인의 아바단, 인구교육, 인구이슈 전남포럼 및 저출생 대응 지역연대 사업 등 가족의 가치와 출산·양육 환경 조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는 홍보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최권범 기자



동신대 산림조경학과 ‘정원드림프로젝트’ 선정

동신대학교는 산림조경학과가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주관하는 ‘2025 정원드림프로젝트’ 전주권역에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사진)

정원드림프로젝트는 서울, 대전, 세종, 평택, 전주 등 5개 권역에서 권역별 5개 팀, 총 25개 팀(125명)을 선발해 정원 작가와 함께 실습형 생태정원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동신대는 ‘에덴의 결 (Eden's Resolve)’이라는 주제로 도시 유휴공간의 생태 전환을 제안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박현석, 노건웅, 김태겸, 조형준, 정소이 등 3학년 재학생 5명이 팀을 이뤄 참여했다. 정원은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수관 식재, 빗물정원 도입을 통한 물순환 회복, 수분 매개 곤충과 자생식물 중심의 생태 구조 설계 등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회복을 핵심 가치로 담았다.

최동환 기자



농촌 일손돕기·취약계층 기부 ‘팜 나누어드림’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직원 50여 명은 최근 함평 손불면 마늘 재배 농가에서 일손도 돕고 농산물을 취약계층에게 기부하는 ‘팜(Farm) 나누어드림’ 활동을 펼쳤다. (사진)

‘팜 나누어드림’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봉사단체를 연계해 농가에는 일손을 제공하고, 봉사단체는 해당 농가로부터 쌀, 양파, 마늘 등 수확한 농산물을 기부받아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농촌-복지 연계형 기부사업이다.

이번 일손돕기는 전남사회복지협의회 직원들과 함께 함평에서 마늘 수확 작업으로 이뤄졌다. 농가주는 “농번기마다 인력 수급이 가장 어려운데 전남도청 직원들이 일손을 도와줘 고맙고 어려운 이웃에 기부까지 할 수 있어 더 기쁘다”고 말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팜 나누어드림은 전국 최초로 전남도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지역 농업과 복지를 동시에 살리는 상생 모델”이라며 “사업대상을 확대해 따뜻한 나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은행 임직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앞장’

광주은행은 최근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공로로 광주 송정지점과 서울 여의도지점 직원이 각각 광주광산경찰서와 서울영등포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고 3일 밝혔다. (사진)

먼저, 광주 송정지점 가계대출 담당 직원은 담보대출을 신청한 고객이 상담 중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모습을 수상하여 대출 자금의 사용 목적을 재차 확인했다. 이에 고객은 ‘리모델링 자금’이라 답했지만, 대출 심사 과정에서 타행 대출이 연달아 실행된 정황이 드러나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고객의 휴대전화에서 원격조종 앱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최근 유행하는 수법으로, ‘카드 배송 오류’ 등을 사유로 링크를 전송해 설치를 유도한 뒤, 설치된 앱을 통해 통화를 가로채고 휴대전화를 원격 조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고객은 경찰이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에게 연결되는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이미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은 수천만 원을 사기범에게 전달한 상태였다. 광주은행 직원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고객은 추가로 약 2억5000만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최권범 기자

밝은안과21병원, ‘제17회 어린이 눈그림 공모전’ 개최

밝은안과21병원은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와 함께 ‘제17회 어린이 눈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3일 밝은안과21병원에 따르면 올해로 17회를 맞은 ‘어린이 눈그림 공모전’은 눈 건강 캠페인의 일환으로 어린이들에게 눈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눈 건강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열고 있다.

공모전의 주제는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과 눈’으로 눈(eye)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된다. 공모전은 전국의 유치원생 및 초·중·고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접수는 이날부터 30일까지 밝은안과21병원 기획홍보실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작품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은 주제 적합성, 완성도,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10명, △입선 20명 총 34명의 수상자가 선정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 및 상품이 수여되고 수상작은 병원 1층 로비에 전시될 예정이다.

결과는 7월9일 밝은안과21병원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7월19일 밝은안과21병원에서 진행된다.

김주엽(사진) 대표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어린이들이 눈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노병하 기자

